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해명자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8. 16(목) / 총1매 (본문1)
국토부	BMW 리콜대응 TF	담당자	•과장 이상일, 사무관 유연형, 주무관 황우관 •☎ (044) 201-3843, 3844
교통안전공단	자동차안전연구원	담당자	•처장 최광호, 책임연구원 박기욱 •☎ (031) 369-0251, 0284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BMW 엔진 자체에도 결함... 국토부는 보고 받고도 감춰’ 사실과 달라

- 언론에 보도된 제작결함 시정계획상 “결함이 있는 구조장치”에 포함된 “원동기(엔진)”는 법령상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분류로서, 배기가스 재순환장치(EGR)가 원동기(엔진)에 포함된다는 의미임
 - 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(EGR)에 생긴 결함이 엔진충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, 위 내용은 이미 8월 2일부터 신문 광고, 우편·문자 통지 등을 통해 BMW 소유주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이미 공개되었음
- 따라서 BMW코리아가 원동기(엔진) 자체의 결함을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,
 - 국토부는 BMW가 주장하는 원인 외에 각계 전문가, 언론 등이 제기하는 원인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,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할 계획임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8.16) >

- ◆ BMW 엔진자체에도 결함 ... 국토부는 보고받고도 감춰
 - BMW가 EGR 제작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엔진구조 자체 결함도 보고
 - 국토교통부는 해당내용을 지난 7월25일 보고받고도 국민들에게 공개 않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BMW 리콜대응 TF 유연형(☎ 044-201-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